

5/16/16

설교 제목: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사무엘상 15:1-23

- (삼상 15: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 (삼상 15: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 (삼상 15: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 (삼상 15: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 (삼상 15:5)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 (삼상 15:6)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 (삼상 15:7)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 (삼상 15: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 (삼상 15: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 (삼상 15:10)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삼상 15: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 (삼상 15: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 (삼상 15: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삼상 15: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삼상 15: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절관주** 잠 28:13

(삼상 15: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절관주** 삼상 9:21

(삼상 15: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삼상 15: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삼상 15: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삼상 15: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삼상 15: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외람되게도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삼상 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가 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와 왕을 세웠을 경우 백성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상 8: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는 왕을 세웠을 경우 백성들이 받게 될 불이익들을 열거하십니다.

(삼상 8: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삼상 8: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삼상 8: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삼상 8: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삼상 8: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삼상 8: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삼상 8: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삼상 8: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삼상 8: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을 세우는 것이 악한 것임과 그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왕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신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추대되었던 사울 왕의 최후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그와 그의 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 길보아 산에서 한 날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병사들의 추격을 받아 쫓기던 중 블레셋 병사가 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든 수종자에게 블레셋 군사가 와서 자신을 죽일 것이니 그러기 전에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종자는 차마 그 부탁을 들어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왕을 어떻게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직접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짐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수종자 또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

그래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인물이 준수했고 품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찌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게까지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삼상 15: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도 사울이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의ニュ앙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당신을 왕으로 세워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 이제 왕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울 왕이 여지껏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지 이 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루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삼만 대의 병거와 육천 명의 마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싸우려고 몰려든 사람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블레셋의 기세를 보고 두려워하여 숨거나 도망가고 그나마 모인 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설상가상 제사를 지내기 위해 와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기한인 이레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싸우려고 모인 백성들이 흩어지지 시작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해서 이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폐위시킬 것이라고 선포하고 떠나 갔습니다.

(삼상 13: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삼상 13: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래로 언제나 함께 해 주셨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상황이 위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뿐더러 말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음을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삼상 15: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삼상 15: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이같이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겨서 아론과 훌이 한사람은 이쪽에서 한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붙들어 올려 승리했던 전쟁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430 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을 르비딴에서 아멜렉이 공격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던 이스라엘이 무슨 방비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당신이 친히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약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공격하고 짓밟으려 했던 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치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젓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둔 사울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은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멜렉 왕 아각과 그 왕의 가족과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삼상 15:10)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삼상 15: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아침 일찍이 사울 왕을 찾아 갑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본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기양양 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백성과 하나님 핑계를 댁니다.

(삼상 15: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첫째 사울 왕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둘째 자기가 한 일이었임에도 백성이 한 일이라고 뒤집어 씌워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셋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삼상 15: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삼상 15: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 왕은 회개하기는 커녕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나갑니다.

(삼상 15: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삼상 15: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간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변명하며 사실상 하나님과 논쟁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히 선포합니다.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대 하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듯이 제물에만
초점을 두어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 1: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호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렘 7:22)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렘 7: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사울 왕은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제사를 통해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 대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속함 받고 또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물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값을 길이 없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죽기까지 순종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